

사설

남북화쟁 대중공사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가 두달에 한번씩 열린다. 이미 5월30일에 제1차 포럼이 송현클럽에서 개최되어 "새정부통일정책"에 관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러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통일에 대한 불교계의 의지를 확인하고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경제, 사회분야에서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로 볼 때 시의적절한 모임이 아닐 수 없다.

발기인들의 면모를 보면 이 포럼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사회각계의 중견지도자들이 통일기본조성을 위해 참여하는 통일포럼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이미 지난번 제1차 포럼에 이어 금년말까지 5차례의 주제가 확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했던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여 통일로 가는 길을 다양하게 모색하려고 한다.

반세기 가 넘도록 분단된 고통을 우리 민족은 겪어오고 있다. 남과 북의 문화가 단절되어 이질화되어 왔다. 이러한 분단의 고착화를 극복하고 민족적 염원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각층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직도 통일에 관한 논의나 대응을 집권세력이 독점하여 지배의 이데올로기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 이미 80년 이후 새롭게 전개된 민족·민주운동의 질적인 성장과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정권이 들어선 후에 통일정책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여 남북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불교가 이 땅의 중생을 위한, 이 사회의 민중을 위한 종교라고 한다면,

이 땅·이 계층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 주는 통일의 길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불교는 이제 통일을 위해 새로 태어나야 할 때이다. 통일의 문제는 반세기에 이르는 단절로 인하여 남과 북의 문화가 이질화되어 가는 것을 막아내는 일부터 풀어야 한다. 민족통일성회복을 위한 상호접근과 적대감·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어렵고 복잡한 일에 불교가 뛰어들어 주도적으로 실마리를 한 가닥씩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민족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된다. 우리 남과 북의 계층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선조와 역사의 공유의식에서 출발한다.

제1차 포럼에서 "민족화합선언문"을 통해 "서로 배종고 나누며,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서로 이익되는 일을 추구하며, 민족발전을 위하여 상호연합하는 실천의 원칙을 다방면으로 구현해 가야한다"고 표명한 것도 바로 동사상의 가르침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불교계가 그동안 다른종교에 비해 이러한 통일운동과 정책대안의 제시가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이미 북한 선교자 단기양성과정인 "통일선교대학"을 열고, 북한교회재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등 여러 체제를 가동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력을 실천하여 오고 있다.

남북화쟁 대중공사의 출발을 계기로 불교계의 통일운동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통일정책방안이 제시되어 통일이 앞당겨질 것 기대한다. 사부대중 불자들이 이 대중공사에 적극 동참하여 한민족 통일정도가 이루어지도록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립박물관 위탁 반대

문화계 "수익사업 우선... 질저하 초래"

불교계 "국가위신 훼손시키는 탁상행정"

정부 위탁운영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민간 위탁운영에 대해 불교계와 문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 문제가 여론에 밀려 철회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다시 제기돼 '새 정부의 문화정책 포기'라는 비난이 거세다.

기획예산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민간위탁운영은 '재정사업의 외부자원 활용' 검토대상사업 96개 중의 하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업무가 많이 있고 외부자원활용성 민(民)·관(官)간의 경쟁 촉진 및 민간의 창의성이 기대돼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물관관계자들은 문화의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국

립박물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 관리의 중추인 박물관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오래된 박물관의 문화재관리 업무를 강화해 국가가 문화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종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박물관을 민간에 이양할 경우 현재 박물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조사사업이 수익사업에 밀려 박물관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불교계에서도 문화와 불교는 뗄 수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보보존위원회 박희스님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못박은 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산하단체는 몰라도 박물관은 결코 장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업부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명대학교수도 "단순히 운영문제만을 가지고 박물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이라며 "불교계도 불교 박물관 문제 등과 연계해 정보보존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위는 96개의 민간위탁 검토대상 사업을 부처간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최종확정. 내년부터 이들 사업의 인건비와 기타사무비를 용역비로 바꿔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기석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박물관 등의 민간위탁운영이 박물관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경.

화엄사 종결스님 송광사 현지스님 산중총회서 후임주지 선출 총무원에 추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후임주지로 종결스님(태안사 주지)이 선출됐다. 화엄사는 25일 산중총회를 열어 후임주지 추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총투표인 1백2명 중 90명이 참가한 이날 투표에서 종결스님이 51표를 명성스님(전 은사주지)이 34표를 각각 얻어 종결스님이 후임주지로 선출됐다.

종결스님은 "종학을 맡겨준 문종의 여러 어른과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문도의 화합을 통해 본사의 종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수행여건 개구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결스님은 화엄사에서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70년 사미계를 73년에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해인사등지서 2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화엄사 강원을 졸업했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는 9일 산중총회에서 후임주지로 현지스님(광주 원효사주지)을 선출, 25일 총무원에 추천서를 접수했다. 현지스님은 "송광사의 승보종찰 전통을 이으며 사회복지와 환경운동 전개 등으로 포교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 나감으로 새 송광사의 위상을 21세기에 걸맞게 고양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지스님은 71년 구산스님은 은사로 득도 법주사 강원과 용주사 중앙선원등지서 수행 이력을 쌓았다.



종결스님 (왼쪽) 현지스님 (오른쪽)

시설사업 중단등록 촉구

조계종 담화문, 법인 중단관장 명문화도

조계종 총무원은 27일 시설사업과 법인의 중단관장 명문화와 촉구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조계종 승적에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사라이 사찰과 암자와 사유재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종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종헌위반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도 "종헌에서 본종의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관장에 해당 법인이 본종 관장에게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종헌 사항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담화

문은 "만약 조계종의 종도로서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밝히고 있다면 중단 집행부로서는 종헌에 규정된 재반규제조치를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종헌에 규정된 규제조치는 종무원법상법인의 종무직 취임금지,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 취임 금지, 각종 위원회 위원 취임 금지, 해당승려의 도제까지 각 교육기관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 등.

조계종 총무원은 94년 개혁

이후 시설사업의 중단등록을 꾸준히 권유해 94부터 현재까지 2백36개 사찰의 등록을 받았다. 이는 90년부터 94년까지 등록된 98개에 비해 두배가 넘는 것. 등록사찰의 절반가량은 재산등록까지 마쳤다.

현재 조계종내에는 1천1백여 시설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담화문이 발표된 이후 강도높게 재산과 명의 등록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인에 대한 중단관장 명문화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선학원과의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중총회결의보다 종헌종법 우선"

조계종 법규위, '해인사 재적승 제명건' 기각

조계종법규위원회(위원장 현해)는 15일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해인사 현승스님이 청구한 '해인사 산중총회의 본사재적승 제명 및 산문퇴방 결의와 사찰 출입통제의 종헌종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기각했다.

법규위원회는 심판결정문을 통해 "산중총회의 종헌종법에 의거한 종무기관이 아니므로 산중총회의에서의 본사재적승 제명 및 산문퇴방 결의와 사찰 출입 통제 조치는 종헌종법 규정에 의거한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심판 결정문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산중총회결의보다 종헌종법 우선

현대만평

아는만큼 보입니다

737-8881

공원공단 임원 교체

환경보존 구체화 포석인듯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보존 위주의 공원 관리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상임이사급 임원을 전면 교체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은 20일 부이사장에 송낙오 前 동아일보 공무국장, 기획이사에 조관섭 前 덕유산관리소장을, 운영이사에 함심근 前 환경관리공단관리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급에 대한 인사는 공원관리를 환경보존 위주로 전환한다는 환

경부와 공단의 방침을 보다 신속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3명, 상임감사 1명 등 모두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6일 신임이사진의 예방을 받고 "그동안 관리공단과 불교계는 마찰도 많았고 서로 돕기도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원임장로제지등 서로가 합심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만큼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임이사들은 "국립공원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의 강화와 자연환경 보전 중심의 공원관리 지침을 마련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초지)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사물),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 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